

[종합·해설]

노대통령 '취임 4주년' 인터넷 매체 기자회견

“국민과 소통 어려워 답답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취임 4주년 노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개헌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을 주제별로 요약했다.

◇진보 논쟁=진보진영 내 문제 제기 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진보를 대표하는 가치와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생각했다. 또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워 이해를 못했다. 일반 국민과 무관한 진보논쟁은 구름 위의 논쟁일 뿐이다. 대통령이 논쟁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대선 정국에 과정과 영향이 있

“남북정상회담 아직 때가 아니다”

을 지는 생각 안 했다. 또 논쟁이 대선에 유리할 지 불리할 지 따질 만큼 정확히 읽을 능력 없다. 저의 진보논쟁은 대선과 관계없다.

◇북한 개혁·개방=북한은 개혁·개방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 또는 아예 위협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남북정상회담=이에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자 해도 되기 어려울 것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상황은 북핵과 관계 정상화 해결이 1차적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이 안되면 남북관계도 풀어나가기 어려운 게 국제적 역학구조다. 우리끼리 만나 약속해도 다시 미국 중국 이런 쪽에 합의를 다시 받아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도 정상회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개헌=많은 사람들이 공감대 없는데 왜 하러 하느냐고 하는데 공감대 없는 얘기를 의례로 제기해서 그것을 논의해보려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그간 각 당과 메이저 신문에서도

“개헌, 메이저 신문서도 공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 그 때라고 해서 됐다. 왜 지금 하면 안 되고 다음 정권서 하면 되는지, 다음 정권에서는 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지지도 문제=지지도 문제는 포기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되니까 그것을 신경을 안 쓰고 제 양심껏 소신껏 가겠다는 얘기가. 지지도 낮은 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다. 정책수행이

어렵다. 지지가 너무 높으면 옳지 않은 것도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다. 그것도 안 된다. 적당한 게 좋다. 제가 (지지를) 잃은 것은 주로 제 책임이지만 방법이 별로 없다. 정치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고 국민과 저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

◇차기 대통령=정치를 잘 알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 가치지향이 분명하고 정

“정치적 내각보다 행정적 내각”

책대안이 분명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정치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하는 대통령'을 얘기하는데, 15대 대선 때도 여론조사를 하면 경제하는 대통령, 16대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항상 높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때 시대정신이 경제였겠느냐.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며, 진정한 의미에서 시대정신은 다 있다.

◇총리 인선 및 개각=총리 인선은 중요한 문제이나 자체에게 말씀드릴 수 없다. 지금이 시점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것이 맞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

개각하면 혁신 등 참여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새로 익혀야 하는데다 바깥에 감이 맞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계에서도 모실 수 없고, 또 그동안 양측에 인제들의 밀착이 좀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끔적이면 바꾸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 그 분들이 와서 정치적 행동을

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7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시대 새물결 운동본부 창립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역·이념·세대화합 ‘삼합운동’ 기대”

박근혜 전 대표, 광주 DJ 컨벤션센터서 특강

한나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인 박근혜 전 대표는 27일 “저는 국립현충원, 4·19 묘지와 광주 5·18 묘역 등 3가지 상징이 나를 역사적 정통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하며 “오늘 이곳에서 지중하면서 더 큰 국가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DJ컨벤션센터에서 새마을운동 정신 계승을 표방하는 자신의 외곽조직 성격인 ‘새시대 새물결(희망 현경대) 창립

대회 특강을 통해 “우리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또 “흥어, 돼지고기, 묵은 김치를 함께 먹는 것이 ‘삼합’”이라고 소개한 뒤 “오늘 이곳에서 지역화합, 이념화합, 세대화합의 새로운 ‘삼합운동’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민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마을운동에 대해 “현을 표방하는 자신의 외곽조직 성격인 ‘새시대 새물결(희망 현경대) 창립

대회 특강을 통해 “우리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시 용당동 재래시장과 동명동 어시장을 차례로 돌며 바닷민심을 공략했으며, 특강을 마치고는 순천으로 내려가 하룻밤을 묵은 뒤 28일에는 고흥군 나로도 우주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고흥 방문에서 자신이 강조해 왔던 과학기술 장려를 통한 과학인구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공항 이전 자치구서 말할 사안 아니다”

박광태 시장 ‘구청장 발언’에 경고

박광태 광주시장의 일부 자치구청장의 독자행보에 얘기를 받고 나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27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일부 구에서 광주공항 이전을 함부로 발표하는데 이는 자치구에서 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구청장은 선출직이지만 행정의 책임자로 정치성을 가지면 안된다”며 “자치구에서 무분별하게 발표하면 시 전체가 흔들리고 시민들이 걱정될 것만 같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 발언은 올초 전갈길

광산구청장이 시장의 입장과는 정반대인 광주공항 폐쇄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일침으로 보인다.

특히 역점사업으로 광주공항의 개항공황 정점을 추진해온 박 시장으로서는 전남도의 입장에 동조하고 다른

정지성이 있는 이 발언에 서운할까 지배가 있다는 분석이다. 그는 또 “구체적 예산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뒤 시에 떠넘기는 사례가 있다”며 “예산확보 검토, 자치구 부담

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와 정책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의견상 시와 구간 원활한 정책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의 아성에 도전

의사를 보였거나 일부 다른 소리를 내는 단체장에 대한 경고의 의미도 담겼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 청장은 올초 “무안공항은 국제선과 국내선 기능을 집중화시켜 노선을 다양화하는 것이 광주 상공인

동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광주공항 기능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해 광주시의 반발을 샀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4월 원탁회의→5월 창당준비위→6월 창당

與 신당 창당 로드맵 확정

열린우리당은 오는 4월까지 제 세력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한 뒤 5월중 신당 창당준비위를 만들고 늦

어도 6월까지 신당을 창당한다는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핵심 당직자는 26일 오후 기자회견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범여권 통합신당 창당 로드맵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당은 내달 중에는 기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동시에 접촉,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 이른바 ‘투 트랙’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반조성 작업이 마무리되면 4월에는 제 세력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한 뒤 4·25 재보선에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5월중에는 창당

준비위를 구성, 늦어도 6월까지의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이다.

이 당직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시민단체 등 외부세력이 창당준비위를 구성해 기성 정치권이 거기에 합류하는 방식”이라며 “준비위가 만들어지면 우리당이나 민주당 등 기성 정치권은 당을 해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월에 창당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당 중앙위의 권한 정치 및 통합수입기구 활동 시한이 6월까지인데다 9월 정기국회를 감안하면 8월

까지는 대선후보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4·25 재보선에 연합공천을 추진하고 5월중에는 창당

준비위를 구성, 늦어도 6월까지의 신당을 창당한다는 구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상업저축은행' (Commercial Savings Bank)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branches in Gwangju, Yeosu, and Suncheon.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3개>

Table listing 23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Table listing 23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Table listing 23 real estate auction items with columns for item number, location, area, and price.

2007. 2. 28.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민수**